

9명 확진 오피스텔, 방판업체 아닌 도박장...숨은 감염원 '공포'

좁은 공간 밀집 집단감염...경찰, 수차례 신고에도 포착 못해 광주 도박장발 슈퍼 전파 우려...은밀한 도박장 적극 단속 시급

광주 구도심 한복판에 은밀히 차려진 불법도박장이 사흘간 9명의 코로나19 감염자를 만들어내는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부경찰은 해당 건물에 대한 수차례의 도박 신고를 받고도 도박장을 '포착'하는데 실패, 결과적으로 '코로나 2차 유행'으로 이어지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소규모 도박장이 적지 않은데다, 감염 대책조차 전무하다는 점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일 광주시와 광주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이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 동구 A오피스텔 내에서 불법 도박이 이뤄진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최근 3일(6월 27일-30일)간 광주 코로나19 확진자 23명 중 9명이 다녀갔거나 들렀던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상태로, 광주시와 경찰은 불법 도박장 역할을 한 오피스텔을 드나든 방문자들 간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광주시가 점검, 관리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가 아니라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광주시가 지난 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집중 점검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 634곳과 다중 밀집 방문판매업체 32곳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오피스텔 내부 CCTV를 살펴본 자치단체와 경찰 내부에서는 애초 알려진 방문판매업체가 아닌, 불법 도박장의 취약한 방역 수준과 접촉식 도박 형태, 26.44㎡가량의 좁은 공간에서 10명이 넘는 방문자들이 머물고 있었던 점 등이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만든 원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CCTV를 확인한 자치단체 측은 "확진자 주장처럼 방문판매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들렀다면 물건을 들고 나와야 할 텐데 영상에서 방문판매 물건을 들고 나오는 방문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과 자치단체 등은 지난달 20일부터

10일 간 건물 내·외부에 설치된 5개 CCTV를 샅샅이 뒤져 오피스텔을 다녀간 방문자들의 영상을 확인했다.

경찰 등은 현금을 세면서 오피스텔을 빠져나가거나 말다툼을 하면서 나오는 영상 등을 토대로 불법 도박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방문자들이 특정되고 방문할 때마다 2-3시간 가량 머무는 점, 해당 오피스텔에서 도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도 여러 차례 있었던 점 등 경찰의 도박 혐의의 수사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오피스텔 인근 주민들도 도박장으로 이용된 사실을 알고 있는 실정으로, 한 주민은 "밤마다 고스톱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불법 도박장 소굴인 것처럼 비쳐질까 무섭다"고 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지난 30일 폐쇄된 광주 동구 충장로의 A오피스텔 빌딩 입구.

구하라 상속재산 첫 재판...친모 출석 안해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 재판이 1일 처음 열렸다.

광주가정법원 가사 2부(부장판사 남해광)는 이날 오후 구하라 친모인 구호인 씨의 소송 첫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구씨 친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구호인씨는 동생 사망 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았으나 구하라 씨가 9살 무렵 기출했던 친모가 갑자기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구씨측 변호인은 이날 친모에 재산을 상속하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서는 양측의 주장과 증인 신청, 입증계획 등 향후 재판 일정 등이 논의됐으며 구씨 측이 같은 그룹에서 활동했던 강지영 아버지 등을 증인으로 신청키로 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언할 지 주목된다.

구씨측은 또 친모를 상대로 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호인씨는 지난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왔던 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이른바 '구하라법' 처리를 호소한 바 있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에 대한 보호·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구호인씨측이 추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제출한 민법 개정안이다.

구씨는 지난 3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렸고 10만명의 동의를 얻어내 소관 상임위에 넘겨졌다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지난 1월부터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2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청결, 친절광주 만들어요" 광주남구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이 1일 남구 백운교차로 일대에서 청결광주, 친절광주, 안전광주, 질서광주, 소통광주 등의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남구청 제공>

뇌물 비리 의혹 목포공공도서관 압수수색

납품 비리 이어 또 수사
전남도교육청 긴장

전남 경찰이 공무원 뇌물 비리 의혹과 관련, 전남도교육청 직속 목포공공도서관을 압수수색했다.

교육용 비품 납품 비리 의혹에 이어 뇌물비리 의혹까지 경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도교육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서 교육청 안팎에서는 사건이 어디로 확산할 지 긴장하는 분위기다.

전남경찰은 지난해 6월 도교육청과 암막스크린 납품 업체를, 지난 5월28일에는 도교육청 본청 시설과 재정과, 나주교육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이미 암막 스크린 납품업체 관계자와 알선업자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로, 암막 스크린 등 각종 교육용 기자재 납품 사건과는 "관련없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예상 피해액 1조6000억원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첫 재판에서 혐의 전면 부인

예상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이 첫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전환사채(CB)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했다고 주장했다.

또 라임이 투자한 지투하이소닉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공동 대표이사를 고소할 것이라던 미공개 내부 정보를 듣고 보유 중인 주식을 전량 매각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자본시장법 위반)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나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관련 의견서는 다음 재판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도 이 전 부사장에 대한 다른 혐의들도 수사하고 있다며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부사장이 이 사건 외에도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병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 사건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박병중 전 고흥군수 영장 기각

박병중 전 고흥군수가 일단 구속을 면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빈태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박 전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빈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를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박 전 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군수는 2015년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자에게 수억 원의 이득을 쥐 군민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